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4, pp.81-112
<https://doi.org/10.29212/mh.2025..134.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홍대용의 <임하경륜>에 나타난 군사 담론의 의의와 한계

변원섭 | 강원대학교 예비군연대장 *

- 목 차
1. 서 론
 2. 병농일치를 통한 100만 양병
 3. 석성의 방호력 증강 축성 방안
 4. 부전승 사상과 변칙적 용병술
 5. 결 론

초 록 홍대용은 먼저 행정조직과 군사 조직을 일원화하고 병농일치로 100만 명의 병력을 양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군사훈련 방법과 병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석성의 우수성을 인정한 바탕에서 방호력을 높이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는 '부전승'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전쟁에 임해서는 적을 완전 섬멸함으로써 후환을 없애야 함을 말하고 있다.

* 강원대학교 평화학 박사

이러한 홍대용의 군사 담론 중에서 균등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의 구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각 도의 능력을 도외시한 채 도별로 10만 명을 일률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지방행정관이 군사 지휘관을 겸하게 하는 문무 일치의 이상론을 따르고 있는 점, 그리고 현실성이 부족한 축성 방법을 제시한 점 등은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100만 명의 군사를 병농일치의 방법으로 양병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역 회피 차단 방법과 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의 충정과 혁신적 생각은 평가받을 부분이기도 하다.

키워드 : 홍대용(洪大容), 담헌서(湛軒書), 임하경륜(林下經綸), 축성(築城), 병농일치(兵農一致)

(원고투고일 : 2025. 1. 9. 심사완료일 : 2025. 2. 24. 게재확정일 : 2025. 3. 4.)

1. 서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백성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으나 사대부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로부터 선진문물을 배우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이때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 조선의 부국강병을 꿈꾼 이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 등으로 대표되는 ‘북학파(北學派)’이다.¹⁾ 이들 북학파 간에도 부국으로 가는 방법론은 차이가 있는데 박제가와 박지원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배워 그들의 방법대로 국가를 경영하면 부국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홍대용은 중국의 문물을 관찰하면서 취할 만한 점을 적시하기도 하고 우리 것과 장단점을 비교하기도 하는 냉정하고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한다.²⁾ 북학파 인사들 간의 인식 차이는 강병 육성에 관한 생각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홍대용은 우리 것의 장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반해 박제가는 청나라의 군사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중용하고 있다. 이러한 두 사람 간의 강병 육성 방법의 차이를 이 논문에서 일부 비교

1) 홍대용이 북학파가 아니라는 이설도 존재한다. 홍대용의 주장이 북학파의 다른 인원 즉, 박지원, 박제가의 주장과 결이 다르며 홍대용이 여타의 북학파 인원들보다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홍대용의 학문적 식견이 북학파에 영향을 주었을지언정 북학파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박희병, 「홍대용은 과연 북학파인가」, 『민족문화사연구』50, 민족문화사학회, 2012, 참조. ; 또한 홍대용이 ‘화이일야(華夷一也)’라고 하는 화이론의 변용을 통해 당시 조선 사회에서 야만시 되었던 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박지원과 박제가 등이 북학론을 제기하였다는 논의도 있다. 김인규, 「담헌 홍대용의 학문관」, 『동양문화연구』26,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7, 참조.

2) 박희병, 위의 논문, 137쪽.

하여 북학파들의 인식 차이를 부분적으로나마 밝힐 것이다.

1731년(영조 7)에 태어난 홍대용은 정조가 세자이던 시절인 1774년(영조 50)에 익위사시직(翊衛司侍直)³⁾으로 추천되어 세자 시절의 정조를 가르치는 위치에서 근무하기도 했다.⁴⁾ 익위사시직으로 추천되어 근무한 이후 1775년(영조 51) 45세에는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이 되었고, 1776년(영조 52) 46세에는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 승진했으며, 1777년(정조 원년) 47세에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제수되었다. 1780년(정조 4) 50세에 영천군수(榮川郡守)로 승진하였으며 1783년(정조 7) 53세에 증풍으로 별세하였다.⁵⁾ 그는 내직에서는 3년, 외직에서는 6년 재직하였다.

홍대용은 1765년(영조 41) 35세에 계부 홍억(洪億)의 연경 사행을 수행하여 60여 일간 연경에 머물면서 엄성(嚴誠), 반정균(潘庭均), 육비(陸飛) 등과 교류하며 지리, 역사, 풍속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고, 독일계 선교사인 유송령(劉松齡, August von Hallerstein)과 포우관(鮑友管, Anton Gogeisl)을 만나 필담을 통하여 천주교와 천문학의 이모저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3) '세자익위사'는 조선시대 왕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로 '시직'은 정8품 관직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9843>, 접속일: 2024.10.07.)”

4) 이때의 일에 대해 홍대용은 “갑오년에 잘못 추천되어 동궁의 관속으로 뽑혀 들어갔는데, 모친의 연세가 70이신지라 봉양을 위해서는 벼슬을 가릴 만한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지만, 경전을 들고 동궁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일은 맑고 영광스러웠습니다(甲午年間 謬膺薦拔 選入東宮官屬 母年七十 義不擇官 且橫經青筵 職事清榮).”라고 회고하고 있다. 『湛軒書』〈外集 卷 1, 與嚴九峯書〉; 여기에서 인용은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의 번역을 따랐으며 앞으로의 인용도 이와 같다. 다만, 필자가 맞춤법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도 있음을 밝혀둔다.

5) 『담헌서 1』(이상은 역,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2), 10~16쪽.; 『임하경륜·의산문답』(조일문 역,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9쪽. 참조하여 필자가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임. 다만, 조일문 역 『임하경륜·의산문답』에서는 홍대용이 ‘영주군수(榮州郡守)’를 지냈다고 되어 있으나, 『湛軒書』〈外集 卷 1, 與孫蓉洲書〉에 “연초에 태인현으로부터 영천군수로 영진되었다(歲首 自泰仁縣 陞遷榮川郡守)”라고 한 것을 근거로 영천군수로 정리하였다.

이를 <유포문답(劉鮑問答)>으로 남겼는데 이는 당시의 서양 문물에 관한 가장 상세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⁶⁾

당시의 집권층인 노론 가문에서 출생한 홍대용은 미호 김원행(溟湖 金元行, 1702~1772)으로부터 주자학적 학문 전통을 이어받았고 주자학을 존중하였지만 타 학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⁷⁾ 홍대용은 “글만 읽으면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선비는 되지 않겠다고 맹서하였고, 군국(軍國)과 경제(經濟)에 늘 마음을 두었다.”⁸⁾라고, 스스로 슬회하고 있듯이 늘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문제(軍國經濟之業)’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임하경륜(林下經綸)>은 홍대용의 문집 『담헌서(湛軒書)』 내집 4권에 실려있는 글로 전국의 행정조직으로부터 통치 기구·관제(官制)·전제(田制)·교제(校制)·고선(考選)·군사·용병 등에 이르기까지 언급되어 있다.⁹⁾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1893~1950)가 일찍이 <임하경륜>을 “담헌의 고심의 유로(流露)이며 실심(實心)에서 우리나라의 지언(至言)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평가¹⁰⁾하였던 바와 같이 홍대용의 핵심 저술이며 그가 평생을 두고 고민했던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생각들이 녹아 들어있는 저술이라 할 수 있다.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4019>, 접속일: 2024.10.07.)”

7) 조광, 「홍대용의 정치사상 연구」, 『민족문화연구』14, 고려대, 1979, 109~111쪽.

8) 『湛軒書』〈外集 卷1, 與汶軒書〉, “誓不爲章句迂儒 而兼慕軍國經濟之業”

9)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dir/item?grpId=hj#dir/node?grpId=hj&itemId=BT&gubun=book&depth=3&cate1=C&cate2=&dataGubun=%EC%84%9C%EC%A7%80&dataId=ITKC_BT_0560A, 접속일: 2024.06.27.)”

10) 조정기, 「담헌 홍대용의 국방론」, 『경남사학』3, 부산경남사학회, 1986, 87쪽에서 재인용.

이전에 홍대용에 관한 연구는 그의 정치사상¹¹⁾ · 실학사상¹²⁾ · 유학사상¹³⁾ · 과학사상¹⁴⁾ · 개혁사상¹⁵⁾ 등과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¹⁶⁾가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최근의 연구 실적은 부족하다. 홍대용의 국방에 관한 생각을 다룬 논문¹⁷⁾이 오래전에 발표되기도 했으나 제도 개혁의 일단으로만 국방 분야를 다루고 있을 뿐이며, 더구나 전쟁을 대하는 홍대용의 생각을 필자와는 다르게 ‘전쟁 배격론’¹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홍대용의 군사에 관한 생각을 양병과 용병 중심으로 살피고 그가 전략적 측면에서는 손자의 ‘부전승 사상’을 지향하면서도, 전쟁을 회피하고 대비하지 않는 ‘전쟁 배격’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적을 ‘완전 섬멸’함으로써 후환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1) 조광, 앞의 논문, 1979.

12) 천관우, 「홍대용의 실학사상」, 『문리대학보』6-2, 서울대, 1958; 김문용, 「홍대용의 실학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5.

13) 최신희, 「담헌의 유학사상과 문학관」, 『한국문학연구』13, 동국대, 1990.

14) 허남진, 「홍대용의 과학사상과 이기론」, 『아시아문화』9, 한림대, 1993; 전상운, 「담헌 홍대용의 과학사상」, 『이을호박사화갑기념실학논총』, 1975; 박성래, 「홍대용의 과학사상」, 『한국학보』23, 1981.

15) 신용하, 「담헌 홍대용의 사회 신분관과 신분제도 개혁 사상」, 『한국문화』12, 서울대, 1991.

16) 민영규, 「17세기 이조학인의 지동설」, 『동방학지』16, 1975; 천관우, 「홍대용의 지동설의 재검토」, 『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사학총론』, 1965.

17) 조정기, 앞의 논문, 1986.

18) 조정기는 담헌의 주장을 ‘전쟁 배격론’으로 단정하면서 담헌이 전쟁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본다. 조정기, 앞의 논문, 79~80쪽.

2. 병농일치를 통한 100만 양병

가. 국가 통치 체계

홍대용은 전국을 9개 도(道)로 고르게 나누고 도마다 정2품 백(伯)을 두고 군과 민을 함께 관장토록 하는 국가 통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서울¹⁹⁾도 한 개의 도가 되는데 경도(京都)로 표시하고 있다. 각 도는 다시 9개 군(郡)으로 나누어 종3품 수(守)를 두고, 각 군은 다시 9개 현(縣)으로 나누어 종5품 감(監)을 두며, 각 현은 다시 9사(司)로 나누어 종7품의 장(長)을 두고, 사는 9개의 면(面)으로 다시 나누어 각각의 면에 종9품의 임(任)을 두고 다스리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²⁰⁾ 국가통치를 도-군-현-사-면이라는 층위로 체계화하고 각 단위의 책임자 직책명과 직급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그의 고민을 느낄 수 있지만, 인구나 생산력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의 구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념적으로 ‘반드시 그 지방을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必均其地方)’라고만 한 점은 그의 한계이다.

19) 이성계는 1394년 개경에서 한양부로 수도를 옮기고 1395년 한성부로 이름을 고쳤다. 한성부는 1910년 경성부로 이름이 바뀔 때까지 515년간 조선왕조의 수도이자 행정구역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의 중심지였다.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탈(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07-AEZ-3101&dataID=AKS-2013-CKD-1240001_DIC@00007537, 접속일: 2024.08.09.)” ; 홍대용이 말한 ‘경도(京都)’는 한성부를 지칭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고자 현대식 표현인 서울로 표기한다.

20)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分國爲九道 京都居一焉 必均其地方 道置伯一位 正二品 兼管兵民 三載考績 稱職則終其身 牧守以下皆倣此 分道爲九郡 伯營居一焉 郡置守一位 從三品 分郡爲九縣 守治居一焉 縣置監一位 從五品 分縣爲九司 監治居一焉 司置長一位 從七品 分司爲九面 司治居一焉 面置任一位 從九品”

〈표 1〉 홍대용이 구상한 국가통치 체계

구분	직책명	직급	비고
도(道)	도백(道伯)	정2품	군과 민을 함께 관장
군(郡)	군수(郡守)	종3품	상동
현(縣)	현감(縣監)	종5품	상동
사(司)	사장(司長)	종7품	상동
면(面)	면임(面任)	종9품	상동

그가 국가통치 체계를 개념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와 연동하여 운용하도록 구상하고 있는 군사 통제 체계의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통치 체계를 설명할 때 154자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군사 통제 체계를 설명할 때는 891자의 한자를 사용하여 약 6배 정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홍대용 주장의 핵심은 군사 통제 체계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군사 통제 체계

홍대용은 국가통치 체계를 상층부에서 하층부 방향으로 개념적으로만 설명하였지만, 군사 통제 체계는 하층부부터 상층부 방향으로 매우 자세히 설명한다.

대장은 9명의 병졸을 거느린다. 1대(隊)는 10명으로 구성한다. 기총은 9명의 대장을 통솔한다. 1기(旗)는 모두 100명으로 구성한다. 교위는 9명의 기총을 통솔한다. 1교(校)는 모두 천 명으로 구성한다. 장군은 9명의 교위를 통솔한다. 1장(將)은 모두 만 명으

로 구성한다. 대장군은 9명의 장군을 통솔한다. 대장(大將) 휘하 군사는 모두 10만 명으로 구성한다. 경(京)은 9명의 장군을 통솔한다. 그중 8명은 각각 그의 도에 두고 1명은 왕도에 둔다. 왕도의 9부에 소속된 낭좌(郎佐)·이예(吏隸)·효위(驍衛)·호분(虎賁)·환시(宦寺)·잡반(雜班)·여군(餘軍)의 무리가 모두 10만으로 구성되니, 9도를 합하면 백만 명이 된다. 도백이 대장군, 군수가 장군, 현감이 교위, 사장이 기총, 면임이 대장이 된다.²¹⁾

제일 하급 제대인 대(隊)에는 대장(隊長)을 포함하여 10명을 편제하였고, 그 위 제대인 기(旗)에는 총 9개의 대(隊)를 편제하되 그중 직할 병력²²⁾이 포함된 1개 기는 내부에 주둔하여 지휘관인 기총(旗摠)을 호위하도록 하고 8개 기는 외부에 주둔하도록 하고 있다.

교(校)의 경우에도 예하에 9개의 기(旗)를 두고 다양하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할병력인 잡색(雜色)²³⁾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8개 기는 외부에 주둔하고 1개 기는 내부에 주둔하도록 하고 있다.

21)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隊長統九卒 一隊共十人 旗摠統九隊長 一旗共百人 校尉統九旗摠 一校共千人 將軍統九校尉 一將共萬人 大將軍統九將軍 大將共十萬人 京統九將軍 八在其道 一在王都 王都下九部 郎佐吏隸驍衛虎賁宦寺雜班餘軍之屬 并爲十萬人 合九道爲百萬人 道伯爲大將軍 郡守爲將軍 縣監爲校尉 司長爲旗摠 面任爲隊長”(각각의 조직에 편제되는 인원 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생략하여 인용한 것임)

22) 피갑기마수(皮甲騎馬手), 하령기수(下令旗手), 곤수(棍手), 쟁수(錘手), 고수(鼓手), 호포수(號砲手), 화병(火兵) 등인데 이러한 직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는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명칭만 열거한다. 이후의 직책명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23) 수하취타수(手下吹打手), 영기수(令旗手), 곤수(棍手), 화전수(火箭手), 호포수(號砲手), 화병(火兵), 기실(記室), 세객(說客), 의사, 이마(理馬), 장수(匠手), 검무(劍舞), 세작(細作), 천문(天文), 지리(地理), 별묘기(別鑣騎)이다.

〈표 2〉 흉대용이 구상한 군사 통제 체계

구분	인원(명)	책임자	비고
대(隊)	10	대장(隊長)	9명의 병졸 통솔, 면임이 겸임
기(旗)	100	기총(旗摠)	9명의 대장 통솔, 사장이 겸임
교(校)	1,000	교위(校尉)	9명의 기총 통솔, 현감이 겸임
장(將)	10,000	장군(將軍)	9명의 교위 통솔, 군수가 겸임
대장(大將)	100,000	대장군(大將軍)	9명의 장군 통솔, 도백이 겸임
경(京)	1,000,000	* 명시되지 않음	9명의 대장군 통솔

장(將)의 경우에는 9개의 교(校)를 통솔하게 되는데 조직이 만 명 단위로 커지다 보니 90명의 특수병력²⁴⁾을 운용하는 별기총(別旗摠)을 따로 두고 있으며, 지휘관인 장군(將軍) 수하에 잡색군²⁵⁾ 천명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장(大將)은 9개의 장(將)을 통솔하는데 조직이 10만 명 단위로 확대되다 보니 직할대의 규모와 참모조직도 비례하여 확대된다. 특수병력을 운용하는 별기총(別旗摠)을 2명 두고, 군사와 부군사도 두고 있는데 이들이 통솔하는 직책을 명시하여 임무를 정확하게 분장하고 있다.²⁶⁾ 대장의 경우에는 큰 조직을 효율적

24) 취타수(吹打手) 1대(隊), 세악수(細樂手) 1대, 대기수(大旗手) 1대, 순시수(巡視手) 1대, 영기수(令旗手) 1대, 곤수(棍手) 1대, 주봉수(朱棒手) 1대, 도부수(刀斧手) 1대, 호포수(號砲手) 1대이다.

25) 영기수(令旗手)·곤수(棍手)·화병(火兵) 각각 1쌍, 쟁수(鐙手) 1명, 고수(鼓手) 1명, 화전수(火箭手) 1기(旗), 정포수(精砲手) 1기, 궁노수(弓弩手) 1기, 별요기(別鑣騎) 1기, 화병(火兵) 1기, 장수(匠手) 3대(隊), 군사(軍師) 1명, 기실(記室) 4명, 글씨 잘 쓰는 자 5명, 그림 잘 그리는 자 5명, 수 잘 놓는 자 5명, 세객(說客) 5명, 의사(醫師) 5명, 이마(理馬) 5명, 세작(細作) 15명, 검무(劍舞) 1대, 천문(天文) 2명, 지리(地理) 3명, 환술(幻術) 2명, 설관(舌官) 3명 등이다. 이를 모두 헤아리면 608명이다. 장군은 이들을 포함하여 직할병력으로 천명을 운용한다.

26) 별기총 1명은 취타수(吹打手) 2대(隊), 세악수(細樂手) 2대, 대기수(大旗手) 2대, 영기수(令旗手) 2대, 순시수(巡視手) 2대를 거느리고, 또 다른 별기총 1명은 곤수(棍手) 2대, 주봉수(朱棒手) 2대, 도부수(刀斧手) 2대, 호포수(號砲手) 2대, 사명군

으로 통제하기 위해 별기총과 군사 등의 예하 조직 관리자를 운용하고 있으며 90명²⁷⁾의 호위 병력도 따로 두고 있다.

경(京)의 경우도 유사하게 작동한다. 왕²⁸⁾은 9명의 대장군을 통솔하는데 각 도에 있는 대장 8명과 직접 관장하는 1명의 대장군을 두어 여기에 90만 명이 편제된다. 여기에 부가하여 서울에 소속된 낭좌(郎佐)·이예(吏隸)·효위(驍衛)·호분(虎賁)·환시(宦寺)·잡반(雜班)·여군(餘軍)을 10만 명²⁹⁾으로 편제하여 모두 100만 명을 거느리게 하였다.

즉, 홍대용은 대(隊)-기(旗)-교(校)-장(將)-대장(大將)-경(京)의 군사 통제 체계를 구상하면서 총인원은 100만 명으로 상정하고 각 제대의 군사 지휘관을 지방행정관이 겸직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각 조직의 구성단위를 9로 한 것은 군사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거나 당시 지방군제³⁰⁾를 비판적으로 보고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양명의 목표치로 제시한 100만 명의 군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제시한 방법론으로 보인다. 이처럼 1명의 지휘관이 9명의 예하 병력 또는

(司命軍) 5명, 독군(羸軍) 5명을 거느린다. 군사(軍師) 1명은 기실(記室) 10명, 능서(能書) 20명, 능화(能畫) 10명, 능산(能算) 20명, 세객(說客) 20명, 유화병(有火兵) 9명을 거느리고, 부군사(副軍師) 1명은 의사 20명, 이마(理馬) 10명, 천문(天文) 5명, 지리(地理) 5명, 설관(舌官) 5명, 환술(幻術) 5명, 검무(劍舞) 2대(隊), 세작(細作) 20명, 유화병(有火兵) 9명을 거느린다.

27) 별요위(別鎬衛) 50명, 별영위(別營衛) 40명이다.

28) 홍대용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가통계 체계상 왕이 그 책임자임을 유추할 수 있다.

29) 왕도에 소속된 군사력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그 명칭들만 거론한다.

30) 당시의 지방군제는 속오군제로써 이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시기 경기·황해·평안·함경 4도의 도체찰사였던 류성룡이 1596년(선조29) 반포한 ‘훈련규식’에 잘 나타나 있다. 류성룡은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준용하여 5명을 1오(伍)로 하고 2오 규모인 10명에 대장(隊長)과 화병(火兵)을 포함한 12명을 1대(隊), 3대=1기(旗), 3기=1초(哨), 5초=1사(司), 5사=1영(營)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오-대-기-초-사-영의 지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1, 37~46쪽, 참조.

예하 지휘관을 지휘하는 체계는 임진왜란 당시 도체찰사로서 실전에서의 군사력 운용을 관찰한 경험이 풍부했을 류성룡이 상정한 3~5명 수준의 예하 지휘관 통솔 개념³¹⁾을 깨고 있는 것으로 실전을 경험하지 않은 비전문가의 소견일 뿐이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당시 중앙군인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편제³²⁾와도 상이하여 실효성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홍대용은 부대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휘관 혼자서 아닌 별기총, 군사, 부군사 등을 두고 이들이 지휘할 병력을 지정하여 임무를 분장함으로써 지휘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구상도 함께하고 있음을 유념해 봐야 한다. 이러한 임무 분장의 실효성은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곤란하지만 그가 군사 통제 체계에 대한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충실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조직의 장이 군사 조직의 장을 겸임하게 하는 홍대용의 구상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홍대용의 이런 주장은 류성룡과 유형원의 진관체제 복구론³³⁾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31) 류성룡, 『서애집』〈연보 제2권, 만력 24년 병신 1월〉, “군사의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대장이 영장에게 명령하면 통솔하는 것은 다만 5인뿐이고, 5인 영장은 파총에게 명령하고 파총은 초관에게 명령하면 통솔하는 것이 또한 5인이며, 초관은 기총에게 명령하고 기총은 대총에게 명령하면 통솔하는 것은 다만 3인뿐이니, 천하에 5인이나 3인을 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言軍數雖多而大將令營將則所統只五人 營將令把總 把總令哨官則所統亦五人 哨官令旗總 旗總令隊總 則所統只三人而已 天下豈有不能運用五人三人者哉).”

32) 훈련도감은 숙종 초반에 기본적인 체제가 정비되었는데 보군은 천총이 지휘하는 좌,우부로 나뉘고 각 부는 파총이 지휘하는 좌, 중, 우사의 세 개의 사로 편성되며 좌, 우사는 포수 5개 초로 구성되고 중사는 살수 3개 초로 편성되었다. 즉, 훈련도감은 3~5각 편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영청과 금위영은 5부 체제를 유지하였는데 각 부에는 5개 사, 각 사에는 5개 초, 각 초는 127명을 편제하였다. 즉, 어영청과 금위영은 5각 편제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노영구, 「조선후기 전술 변화와 중앙 군영의 편제 추이」, 『군사연구』144, 육군군사연구소, 2017, 50쪽, 참조

33) 이에 대해서는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병농일치론과 군사제도 개혁안」, 『한국실학연구』40, 한국실학학회, 2020; 서태원, 「17세기 반계 유형원의 지방군제 개혁

다. 주지하다시피 진관제가 강력한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한계를 노출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는 경장(京長)이 경병(京兵)을 이끌고 내려가 지방 지휘관과 함께 특정 지역을 방어하는 제승방략이 채택되었던 것인데, 제승방략 또한 대규모 외침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음이 임진왜란에서 드러나자, 각 진관이 독립적으로 방어 임무를 수행하여 방어력을 높이고자 류성룡과 유형원이 진관체제를 복구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³⁴⁾

진관체제는 진관의 수령이 군직을 겸임하여 지역 방어를 책임지게 하고 있는데 홍대용의 생각도 여기에 닿아있다. 행정조직의 장이 군사 조직의 장을 겸하게 한 홍대용의 생각은 군사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병법을 운용할 줄 몰랐던 문관·음관 출신의 지방관들이 적과 싸우지 못한 예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육예(六藝)를 배운 인재가 평시에는 행정조직을 관리하다가 유사시 군사 지휘관으로 활약할 수 있다’라는 문무 일치의 이상론을 따르고 있는 홍대용의 생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³⁵⁾ 또한, 홍대용이 각도의 구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전술하였지만 이에 부가하여 각 도의 담세능력이나 토지 생산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성해야 할 군사의 수를 천편일률적으로 10만 명씩 배분하여 총병력을 100만 명으로 산정한 것은 그의 주장이 개념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한 부분이다.

론, 『역사와 실학』34, 역사실학회, 2007, 참조.

34) 송양섭, 위의 논문, 305~307쪽; 서태원, 위의 논문, 66~67쪽.

35) 속오군이 처음 성립된 1594년(선조27) 이후 수령이 군정과 민정을 겸하는 문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조련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1627년(인조5)에는 ‘영장절목(營將節目)’을 반포됨으로써 속오군의 조련을 영장에게 전임시키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1637년(인조15)에 민폐 등의 이유로 영장제가 혁파되어 다시 수령들이 군정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훈련이 부실화하자 1654년(효종5)에 다시 3남에 영장을 파견하였다. 이처럼 군정과 민정을 겸하는 군사 체계는 여러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제도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우철, 앞의 책, 89~110쪽, 참조.

다. 병농일치 군대 운영

홍대용은 철저한 인구조사로 군적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인구의 이동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100만의 병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사람이 나서 여덟 살이 되는 즉시, 그 이름을 팔뚝에 검은 글자로 새긴다면 호패를 사용하지 않아도 간사한 백성이 그 이름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³⁶⁾

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사하는 자는 벌을 준 다음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며... (중략)... 모든 도로에는 검문소를 설치하여 길가는 나그네를 관찰하고 책임자를 두어서 간사하고 포악한 짓을 사찰하도록 한다. 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고 증명서 없이 지나갈 때는 반드시 척후하는 사람이 5리마다 서서 검문한다.³⁷⁾

홍대용은 팔뚝에 이름을 새기는 방법과 이사를 통제하고 이동자에 대한 검문 등의 방법으로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동할 때 관에 보고하도록 한 조치는 지금의 병역의무자 관리 방법과 유사하다. 지금도 병역의무자가 주소지를 옮길 때 개인이 주소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안전

36)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人生八歲 卽但其名於臂 不用戶牌而奸民无所逃其名矣”

37)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不告擅移者 刑之而復其居...(中略)...凡道路皆設亭院 以待行旅 亦有其長以譏奸暴 某幹某處 各有行狀 無驗違法 不聽過去 必有堙人間以五里 其於歧歧 各有指別”

부 장관이 병무청장에게 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³⁸⁾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사람의 국외여행을 제한하는 조치³⁹⁾를 취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홍대용이 제안한 방법들이 일견 수긍 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철저한 통제로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역을 부과하더라도 당시의 인구 수준으로 100만 명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군역에서 제외되었던 인구가 상당하였을 상황을 생각하면 더 큰 의문을 품게 한다. 그러나, 홍대용은 상비군 개념의 군대가 아니라 ‘병농일치’ 개념의 군대를 구상하였기에 100만 명의 병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봄이 되면 농막에 나가 살면서 남자는 농사에 힘쓰고 여자는 누에치기를 부지런히 하는데, 여가 날에는 효도와 공경하는 도리를 강론하고 치고 찌르는 군사훈련도 한다. 서리가 내리고 곡식을 거두게 되면 소와 말에 싣고 모두 성안으로 모여서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데 수입을 따져서 지출한다. 50세가 된 다음이랴 명주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유 있는 양식은 저축하여 수재와 한재에 대비하며, 군사를 접고하고 기예를 뽑는데 상벌을 받게 하되, 개별로 그 재능을 시험하든가 혹은 단체로 그 진법을 연습하며 성에서 훈련하기도 하고 또는 들에서도 연습하여 병기

38)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등 신상변동자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9) 「병역법」 제70조 제1항,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를 수리하고 군사를 장려하는데 항상 경보(警報)가 내린 듯이 하여야 한다.⁴⁰⁾

이처럼 홍대용은 병농일치 개념의 군대가 어떻게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50세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자원 확보의 융통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홍대용의 병농일치 개념의 양병론은 당시 실학자들의 군제 개혁론의 핵심이 되는 사상이었으며, 17세기 반계 유형원(磻溪 柳馨遠, 1622~1673)과 18세기 성호 이익(星湖 李瀾, 1681~1763)·농포자 정상기(農圃子 鄭尙驥, 1678~1752)도 이러한 주장을 하였고, 19세기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의 여전론(閔田論)과 정전론(井田論) 등에도 계승되고 있다.⁴¹⁾ 홍대용은 이전 실학자들의 병농일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훈련하고, 언제 군역이 면제되는가 하는 등의 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병농일치의 개념을 심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100만 양병이라는 수치를 제시하여 다른 이들의 주장과 차별화하고 있다.

여기서 100만이라는 수치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홍대용이 살았던 18세기의 인구가 대략 1,500만 명 정도였다는 연구 결과⁴²⁾를 기반으로 생각할 때 ‘100만 양병’은 당시 인구의 6.7%

40)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仲春則出處於田間之宅 男力于農 女勤于蠶 以其暇日講孝悌習擊刺 霜露既降 禾黍既穫 載以牛馬 咸聚于城 納稅于公 量入以出 五十然後衣帛食肉 儲其贏餘 以備水旱 閱旅較藝 明其賞罰 或散以試其才 或聚以習其陣 或練於城 或習於野 繕甲厲兵 常若有警”

41) 서태원, 앞의 논문, 74쪽.

42) 이영구는 1783년도(홍대용 사망 연도) 조선 인구가 14,404,000명으로 추정하였다. 이영구, 「조선시대의 인구변동과 경제발전」,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7, 84쪽; 이영구와 이호철은 1783년도 조선 인구가 14,317,000명으로 추정하였다. 이영구·이호철,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추계(Ⅱ) -17,8세기 인구증가율 추계를 중심으로-」,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5,200만여 명⁴³⁾ 수준에서 현역 50만여 명과 예비 병력 310만여 명을 합친 360만여 명⁴⁴⁾이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는 병력(인구 대비 약 6.9%)이다. 50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병농일치 개념의 6.7% 병력과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6.9%의 병력은 순수하게 인구만을 두고 생각한다면 유사한 수준이다. 현재 전역 후 8년 차까지 예비군 임무가 부여되는 데 비해 홍대용은 50세까지 군역을 부과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100만 명이 전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조선이 양난 이후 국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군제 정비 노력이 실패하였다고 하여 홍대용의 100만 양병 주장을 마냥 허황(虛荒)한 것으로 폄훼할 수 없다고 본다.

홍대용은 상비군 개념의 양병은 조선의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유형원, 이익 등 이전의 여러 실학자가 주장하였던 병농일치론을 대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추가로 팔독에 문신을 새기고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군역 회피 차단 방법, 병농일치 군대의 유지와 훈련방법 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추가로 제시하여 병농일치 군대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행한 지 오래여서 폐단이 따르고 소략하고 형편없게 된 이전의 제도를 다시 고쳐 쓰려는 변법갱장(變法更張)의 노력’⁴⁵⁾을 한 것이라고 본다.

『경영사학』3집, 경영사학회, 1988, 181쪽; 또한,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시대의 인구수는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19세기 말엽에는 1,7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front/ta/view.do?levelId=ta_h71_0060_0040_0010_0050, 접속일: 2023.11.08.)”;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18세기 후반의 인구 규모를 대략 1,500만 명으로 상정하였다.

43) 통계청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인구는 51,692,272명이다.

44) 2022년 「국방백서」334쪽.

45)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行之既久 弊仍隨之 凌遲疎畧 如此之甚也 爲今之計 當率由舊章而申明之耶 當一變前法而更張之耶”

3. 석성의 방호력 증강 축성 방안

1530년(중종 25)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성곽항에 기재되어 있는 성곽의 총수는 행성을 제외하고 181개인데 이중 93.9%인 170개의 성이 석축으로 되어 있고, 관방항에 기재되어 있는 성은 총 159개 가운데 89.9%인 143개가 석축으로 되어 있다.⁴⁶⁾ 이처럼 석성이 일반화된 것은 우선 석성이 견고하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18세기에 들어 위력이 급속히 증가한 화약 무기를 활용한 공성용 화포를 벽돌성과 석성에 대해 실제로 사격해 본 결과 벽돌성이 석성에 비해 화약 무기에 취약함이 드러났다.⁴⁷⁾ 일례로 1742년(영조 18)에 강화성을 개축하면서 강화 유수 김시혁이 중국 북경에서 벽돌을 구워 성을 쌓는 예에 따라 개축할 것을 건의하여 벽돌로 개축하였으나 직접 사격해 본 결과 공성용 화포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1752년(영조 28)에 있었던 강화 외성 축조는 토성으로 하고 성가퀴의 축조는 벽돌로 하고 있으며, 이후 성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벽돌을 사용하고 성곽의 본체는 벽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다.⁴⁸⁾

성곽의 본체는 돌을 사용하고 일부 성의 부속 시설물만 벽돌로 쌓는 것이 대세가 된 때문인지 홍대용은 축성 재료를 돌로 할 것인지 벽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성은 높이 쌓고 도랑

46) 유재춘, 「조선전기 성곽 연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중심으로」, 『군사』33, 군사편찬연구소, 1996, 105쪽.

47) 이에 대해서는 변원섭, 「북학의 병론으로 본 박제가의 강병육성책 연구」, 『군사연구』149, 육군군사연구소, 2020, 191~222쪽, 참조.

48) 노영구, 「조선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郭史的 의미」, 『진단학보』88, 진단학회, 1999, 300~301쪽.

은 깊이 판다(高其城而深其溝)”라고 축성의 기본부터 강조한다.

산성과 야성을 막론하고 성에서 10리 안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고 수백 보 안에는 시계를 가리는 숲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성의 크기는 사람 수요에 달렸으나 작더라도 견고한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밖에는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봉우리가 없어야 하며 성안에 물이 풍부한 곳을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요새지라 할지라도 병법에서 말하는 피해야 할 곳이다.⁴⁹⁾

홍대용은 성 부근 10리 안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고 성 주변을 사계청소 하여 시야를 확보할 것과 성 밖에서 성을 감제관측 할 수 있는 봉우리가 없어야 함을 말하면서 성안에 물이 풍부한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는다. 그는 또 성을 쌓을 수 있는 장소를 어떤 곳으로 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성의 크기보다는 견고함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성의 방호력을 높일 수 있는 축성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城) 쌓는 법은, 여장(女牆)⁵⁰⁾ 높이는 한 장 정도로 하여 사람들이 허리를 펴고 통행하여도 성 밖으로부터의 화살과 돌을 맞을 염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중략)… 백 보(步)쯤 되는 거리에는 모두 옹성(瓮城)을 설치해야 한다. 둥글고 모나게 하며 위에 다락집을 세우는데 오로지 견고하고 작게 해야 한다. 기둥은 순전히 돌로 하고, 지붕은 조각 벽돌로 덮으며, 서까래와 대들보는 소금물에 담가서 불이 붙어도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쌓는 돌은 모두 양쪽 머리에 두어 치 정도로 구멍을 파서 하나는 위

49)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無論山城與野城 城外十里之內 不許人居 數百步之內 不可使有林樹翳蔽 城之大小 惟在人眾之多寡 而要在堅而小 必擇外無窺峯而內富水根 不然則雖有天塹之險 未免爲兵法之絕地也”

50) 성 위에 쌓은 낮은 담을 말하며 치첩(雉堞) 또는 성가퀴로 칭하기도 한다.

에 놓고 하나는 아래에 놓는데 오목한 곳과 볼록한 곳이 서로 꼭 들어맞게 한다. 위쪽에 있는 총구멍으로부터 아래 주춧돌까지 한 치 정도로 구멍을 파고 무쇠를 녹여 부어서 서로 금석(金石)처럼 굳어지게 한다.⁵¹⁾

홍대용은 성가퀴가 낮아 성 위로 기동하면서 전투할 때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어 전투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망을 볼 때나 포를 쏠 때도 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문제점을 정확히 관찰하여 성가퀴를 ‘높게’ 쌓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는 성문을 지키기 위해 성문 밖에 쌓는 작은 성인 옹성(瓮城)을 쌓을 때도 화공을 받을 때를 대비하여 기둥을 돌로 하고 나무를 사용할 때는 불에 타지 않도록 소금물에 담갔다 쓰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돌에 요철(凹凸)을 주어 깎아 쌓음으로써 돌의 밀착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성의 위와 아래를 관통하여 쇳물을 녹여 부어 돌의 결속력을 단단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돌에 요철을 주어 깎아 맞추도록 하는 방법은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설득력이 있으나 쇳물을 녹여 부어 성을 강화하려는 방법은 철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없었던 기술적 한계와 철을 대량 생산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당시에 통용될 수 없는 방법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홍대용의 주장은 여러 실학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장한 축성방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유형원은 돌과 벽돌을 이용하고 석회로 보충하고자 하였고 정상기는 석회와 흙, 모래를 적당히 섞어 사용하여 석축 성곽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⁵²⁾ 그렇지

51)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築城之法 女牆須高一丈 使人偃步通行 外無矢石之虞...(中略)...百步皆設瓮城 其形圓而銳 上建譙樓 惟務堅小 柱用全石 蓋以片磚椽樑之木 沈以鹽水 使着火不焚 所築之石 皆於兩端 鑿其半數寸許 一上一下 凹凸相參 上自懸眼 下至空石 鑿孔徑寸 灌以溶鐵 彼此相持 便成金石”

52) 김진수, 「조선 후기 실학자의 군제 개혁론에 대한 연구」, 『군사연구』131, 육군군사

만 조선 후기에 경영되었던 산성을 살펴보면 홍대용의 방식대로 쇠물을 녹여 부어 성곽의 본체를 강화한 성은 발견할 수 없다는 점⁵³⁾에서 그의 주장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석성을 강화하기 위해 석회 모르타르를 적극 사용한 흔적은 찾을 수 있다.⁵⁴⁾ 쇠물을 녹여 부어 석성을 강화하고자 한 홍대용의 생각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었던 주장이었지만, 그의 주장은 북학파의 일원인 박제가가 “상대편의 담과 벽은 모두 견고한데 우리의 성곽은 완전하지 못하니 이것은 벽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⁵⁵⁾라고 진단하면서 벽돌을 사용해야만 튼튼한 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단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성용 화포의 실제 사격을 통해 방호력이 입증된 ‘돌’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석성의 견고함을 한층 더 강화하여 방호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공에 대비하는 방법과 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평가해야 한다. 쇠물을 녹여 붓는 방법은 현실성 없는 방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이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조선 석성의 우수성을 긍정적인 상태에서 여러 방법으로 석성의 방호력을 강화하려 한 자주적 노력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연구소, 2011, 152쪽.

53) 이에 대해서는 라경준, 「조선 후기 성곽 축조 기법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8, 한국중세고고학회, 2020, 참조.

54) 이에 대해서는 황희영·권양희, 「조선 후기 성곽 축조에 사용된 석회 모르타르의 재료 및 기법에 관한 문헌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2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22, 63~72쪽, 참조.

55) 『北學議』〈兵論〉, “人之墻壁皆堅 而我之城郭不完 是無甃也”

4. 부전승 사상과 변칙적 용병술

홍대용은 “병기(兵器)란 사람을 해치는 도구다. 성인으로서 살인을 일삼는 것이 옳겠는가?”⁵⁶⁾라고 전제하면서, 서로 강함으로 부딪혀 사상자를 많이 내는 것은 군사적 재앙이므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해자를 막아놓고 강함을 다투다가 사상자를 반이나 내는 것은 군사의 재앙이며, 성을 공격하고 땅을 공략하여 백번 싸워 다 이기는 것은 군사로서의 하위다. 인의(仁義)가 나라 안에 행해지고 적국도 밖에서 쉬게 되어 싸우지 않고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은 곧 성인의 사람 살리는 도구이며 용병으로서의 최선이다.⁵⁷⁾

주자학적 사고에 기초하여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려 한 용병술은 인의(仁義)를 중시한 당시의 사고체계 내에 있던 홍대용의 충실한 반응이었다. 그러지만 홍대용은 인의에 기대어서만은 전쟁을 막을 수 없고 군사를 늘 준비하고 훈련해야만 막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무(武)란 백년토록 쓰지 않는 것은 좋으나 하루라도 훈련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전란 시기에 훈련하면 외구(外寇)를 막고 왕실을 호위할 수 있으며, 평화 시대에 훈련하면 간인(奸人)들의

56)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兵者 傷人之具也 聖人以殺人爲事可乎”

57)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故阻壕爭強而死傷相半者 兵之災也 攻城略地而百戰百勝者 兵之下也 仁義成於內而敵國息於外 不戰而屈人之兵者 乃聖人所以生人之具而兵之善之善者也”

넘겨봄을 끊고 화란(禍亂)의 싹을 막을 수 있다.⁵⁸⁾

홍대용은 평화 시기에 훈련에 매진하면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좋은 군사력 운용 방안임을 말하고 있다. 평화 시기에도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해야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전쟁하려는 외적의 시도를 근본부터 차단할 수 있다는 그의 사고는 막연하게 전쟁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강한 군사력 양성을 통해 전쟁을 막고자 한 적극적인 평화 추구 자세이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홍대용에게 인의만을 강조하여 적을 가볍게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사력의 전술적 운용 차원에서는 오히려 능수능란한 변칙 운용과 적의 완전한 섬멸을 주장하고 있다.

‘바짝 다가가서 공격하지 말고 바짝 뒤쫓아 추격하지도 말라’는 말은, 늦추어서 그의 살길을 열어 줌으로써 그에게 있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포위하더라도 반드시 한쪽을 띄우라’라고 한 말도 또한 이 뜻이다. 그러나, 살길을 열어 준다는 것은 곧 죽게 만드는 것이다. 혹 복병을 설치하여 죽이기도 하고 혹 뒤를 쫓아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은 적을 그냥 놓아줌이 아니라는 말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루만 적을 놓아주어도 10세(世) 동안 걱정을 만든다’라고 하였다.⁵⁹⁾

58) 『湛軒書』〈內集 卷3, 勸武事日序〉, “武可百年而不用 不可一日而不講也 講之於衰亂搶攘之際 則可以折衝外侮而敵愾王室 講之於昇平逸豫之時 則可以絕奸人之覬覦而杜禍亂之萌矣”

59) 『湛軒書』〈內集 卷4, 林下經綸〉, “勿迫勿追 蓋緩之以開其生路 不使其并力齊心死中求生也 圍師必闕 亦此意也 雖然 生路之開 乃所以死之也 或設伏穢之 或從後擊之 非徒然縱賊之謂也 古語云 一日縱賊 十世之患”

‘바싹 다가가서 공격하거나 뒤쫓아 추격하지도 말라’는 말은 적의 살길을 찾아주어 인의를 실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이 이관사판으로 목숨을 걸고 반격하여 아군이 의외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말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포위하더라도 반드시 한쪽을 틈우라’라고 하는 말도 적을 놓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틈이 준 한쪽에 복병을 두어 무찌르거나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섬멸하라는 말이라고 그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우환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홍대용이 같은 글에서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고, 또 적을 완벽히 섬멸하지 않고 놓아주면 우환이 된다고 하는 말을 동시에 하는 것은 일견 모순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홍대용은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적 차원에서는 손자가 말한 ‘백번 싸워 백번 모두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킴이 최선이다(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는 부전승(不戰勝) 사상을 받아들여 인의를 바탕으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킴이 최선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평시부터 군사력을 강화 유지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적의 완전 섬멸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는 전략적으로는 손자의 ‘부전승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일단 전쟁이 벌어져 싸움할 때는 적을 적절히 놓아주는 듯, 퇴로를 열어 주는 듯한 능수능란한 변칙적인 전술 운용을 통해 결국 적을 ‘완전 섬멸’하여 후환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결 론

홍대용은 실용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할 방도를 추구한 ‘북학파’의 일원이었다. 그의 글 모음인 『담헌서』 곳곳에는 부국과 강병을 이루기 위한 그의 생각들이 나타나 있다. 이중 <임하경륜>은 홍대용이 평생을 두고 고민했던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핵심 생각들이 녹아 들어있는 저술이다.

홍대용은 여기에서 ① 병농일치를 통한 100만 양병 ②석성의 방호력 증강 축성 방안 ③부전승 사상과 변칙적 용병술이라는 그의 생각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군을 100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허황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병농일치의 군대이므로 전혀 불가능한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홍대용의 병농일치 주장은 반계 유형원 등의 병농일치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다산 정약용에게도 계승되고 있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군제 개혁론의 핵심이 되는 사상이다. 현재 한국군이 상비군과 예비군을 포함하여 전 국민 대비 6.9% 정도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당시 인구 대비 6.7%의 병력은 상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군 개혁이 여러 이유로 실패하였다고 해서 실행해 보지도 않은 홍대용의 주장을 허황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홍대용이 국가통치 체계를 제시하면서도 균등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의 구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각 도의 경제력이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만 명씩 양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지방행정관이 군사 지휘관을 겸하게 하는 문무 일치의 이상론을 따르고 있는 점은 그의 주장이 개념에 머물러 있으며 이상론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성을 쌓는 방법에 대해 조선의 축성 재료인 돌을 활용한 석성의 우수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성 위에서의 기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가퀴를 높이고,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 돌을 요철 형태로 깎아 아귀가 잘 맞도록 하고 쇳물을 부어 아래 윗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쇳물을 녹여 부어서 성의 본체를 강화하는 방법들은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로 실현이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여타의 방법들은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박제가가 성을 벽돌로 쌓아 방호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단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더 자주적인 접근이었다고 여겨진다.

홍대용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적과의 대결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아군의 피해 없이 승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적의 섬멸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주장에 방점을 두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홍대용의 양병에 대한 생각들이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병농일치를 통해 100만 명의 양병이 가능하다고 보고 병농일치 군대의 훈련 방법과 군역 회피 차단 방법을 당시 실정에 맞도록 제시한 점은 평가받아야 할 것이며, 평시부터 강군을 육성함으로써 전쟁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군사력은 백년토록 쓰지 않는 것은 좋으나 하루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고, 평화 시기에도 늘 전쟁이 일어날 듯이 훈련해

야 한다고 주장한 홍대용은 전쟁 배격론자, 전쟁 회피론자가 아닌 준비된 강한 군사력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준비된 힘을 통한 평화론자’였다.

〈참고문헌〉

1. 저서

- 김우철, 『조선 후기 지방군제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1
- 홍대용, 조일문 역, 『임하경륜·의산문답』,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 _____, 이상은 역, 『담헌서 I』, 서울: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2

2. 학술지 논문

- 김인규, 「담헌 홍대용의 학문관」, 『동양문화연구』26(2017): 9, <https://doi.org/10.22863/eacs.2017.26..7>
- 김진수, 「조선후기 실학자의 군제 개혁론에 대한 연구」, 『군사연구』 131(2011): 152,
<http://uci.or.kr//G901:A-0003011238@N2M>
- 노영구, 「조선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郭史的 의미」, 『진단학보』 88(1999),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9233711>
- _____, 「조선후기 전술변화와 중앙 군영의 편제 추이」, 『군사연구』 144(2017)
- 라경준, 「조선후기 성곽 축조 기법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8, 한국중세고고학회, 2020,
<http://uci.or.kr//I410-ECN-0101-2021-090-001405941>
- 민영규, 「17세기 이조학인의 지동설」, 『동방학지』16(1975),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1104860@N2M>
- 박성래, 「홍대용의 과학사상」, 『한국학보』23(1981),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0444972@N2M>
- 박희병, 「홍대용은 과연 북학파인가」, 『민족문화사연구』50 (2012): 131-137, <http://uci.or.kr//G704-000519.2012..50.013>

- 변원섭, 「북학의 병론으로 본 박제가의 강병육성책 연구」, 『군사연구』 149(2020),
<https://doi.org/10.17934/jmhs..149.202006.223>
- 서태원, 「17세기 반계 유형원의 지방군제 개혁론」, 『역사와 실학』 34(2007),
<http://uci.or.kr//G901:A-0002575146@N2M>
-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병농일치론과 군사제도 개혁안」, 『한국실학연구』40(2020),
<http://uci.or.kr//I410-ECN-0102-2022-100-000244783@N2M>
- 신용하, 「담헌 홍대용의 사회신분관과 신분제도 개혁사상」, 『한국문화』 12(1991),
<http://uci.or.kr//G901:A-0000893327@N2M>
- 유재춘, 「조선전기 성곽 연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중심으로」, 『군사』33(1996),
<http://uci.or.kr//G901:A-0001153099@N2M>
- 이영구 · 이호철,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추계(Ⅱ) -17,8세기 인구증가율 추계를 중심으로-」, 『경영사학』3집(1988): 181,
<http://uci.or.kr//G901:A-0000745646@N2M>
- 전상운, 「담헌 홍대용의 과학사상」, 『이을호박사화갑기념실학논총』, 1975
- 조광, 「홍대용의 정치사상 연구」, 『민족문화연구』14(1979),
<http://uci.or.kr//G901:A-0000405319@N2M>
- 조정기, 「담헌 홍대용의 국방론」, 『경남사학』3(1986),
<http://uci.or.kr//I410-ECN-0101-2009-911-013473986@N2M>
- 천관우, 「홍대용의 실학사상」, 『문리대학보』6-2(1958),
<http://uci.or.kr//G901:A-0000039138@N2M>
- _____, 「홍대용의 지동설의 재검토」, 『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사학총론』, 1965.

최신호, 「담헌의 유학사상과 문학관」, 『한국문학연구』13(1990),
<http://uci.or.kr//G901:A-0000830715@N2M>

황희영 · 권양희, 「조선 후기 성곽 축조에 사용된 석회 모르타르의 재료
및 기법에 관한 문헌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29, 한국전통문
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22,
<http://uci.or.kr//G901:A-0010739394>

허남진, 「홍대용의 과학사상과 이기론」, 『아시아문화』9(1993),
<http://uci.or.kr//G901:A-0000980740@N2M>

3. 학위 논문

김문용, 「홍대용의 실학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http://uci.or.kr//G701:B-00052467835@N2M>

이영구, 「조선시대의 인구변동과 경제발전」,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7: 84,
<http://uci.or.kr//G901:A-0004752364@N2M>

4. 기타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2022 국방백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357>>

통계청 <<https://kostat.go.kr>>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탈 <<http://waks.aks.ac.kr>>

<Abstrac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Military Discourse in Hong Dae-yong's(洪大容) Imhagyeongnyun(林下經綸)

Byun, Won-Seob

This paper examines Hong Dae-yong's(洪大容) thoughts on military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 presented in Imhagyeongnyun(林下經綸), which is part of his collection of writings, Damheonseo(湛軒書).

Hong Dae-yong presented methods for military training and manpower recruitment by unifying administrative and military organizations and suggested training an army of one million soldiers through the integration of agricultural and military duties(兵農一致). He offered detailed strategies for enhancing defensive capabilities, emphasizing the superiority of stone fortresses. Regarding military operations, Hong Dae-yong emphasized bujeonseung(不戰勝) as the ideal outcome. However, he argued that in actual warfare enemy should be completely annihilated to eliminate future threats.

Although Hong Dae-yong's military discourse demonstrates significant foresight, he failed to propose equitable administrative divisions for governance and advocated uniformly training 100,000 soldiers per province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differences. Furthermore, his vision of merging civil and military roles—appointing local administrators as military commanders—along with his proposed

fortress construction methods, lacked practicality.

Nonetheless, Hong Dae-yong'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military through the integration of military and agricultural systems, along with his concrete proposals to curb military service evasion, reflects his innovative and patriotic mindset.

Keywords: Hong Dae-yong(洪大容), Damheonseo(湛軒書), Imhagyeongnyun(林下經綸), Fortress Construction(築城), The Integration of Agricultural and Military Duties(兵農一致)